

6·25전쟁 아나바시스

- 장군들의 회고록에 관한 연구 -

程 土 雄

(육군사관학교 교수)

1. 서 론
2. 전쟁회고록의 유래: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3. 6·25전쟁 회고록 현황
4. 네 장군들의 회고록: 이응준,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
5. 결 론

1. 서 론

回顧錄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살아 온 행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으로서 역사가들이 매우 귀중하게 취급하는 역사자료이다. 回顧錄은 비교적 잘 선택된 중요한 진실들과 다른 자료에서는 찾기 힘든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어 역사가들은 그것을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 논문은 韓國戰爭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회

고록 가운데서 특히 한국인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에 관한 연구이다. 목적은 전쟁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들의 회고록 가운데 몇 권을 선택하여 상호 비교조사하고 회고록의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6·25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회고록을 읽을 때 우리는 집필자의 생애와 업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집필자가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집필한 것인지 그리고 집필자 자신이 균형감각을 갖고 역사적 사건들을 집필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타진하면서 읽어야 한다. 역사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狀況이 중요한가 아니면 人物이 중요한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전개된 상황과 주요인물의 역할을 함께 놓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均衡感覺을 잃고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회고록 집필자는 과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이 취한 행동과 역할을 생생하게 기록했는가? 만일 집필자 자신이 상황을 대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는 회고록을 집필하는 순간까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사건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쓴 회고록에 중요한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고록은 일반독자 아닌 집필자 자신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일기나 수필과 같은 성격이 다분해서 집필자의 주관과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말하기보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고 자기 공적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앞서거나, 상황보다는 자기역할 위주로 사건을 관찰하기 십상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회고록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 회고록과 그밖에 다른 歷史資料를 참고하고 교차 검증하면서 歷史的 事實을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비관적인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어떤 상황이 왜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특정 인물이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주요인물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상황을 악화시킨 우둔한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운이 좋았든가, 아니면 불운이 겹쳤든가 등이다.

2. 전쟁회고록의 유래: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 회귀본능이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그 경향이 강하다. 노인들은 체력과 정신력의 현저한 쇠퇴를 느끼면서 자신의 무력해진 현재보다는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며 자기만족을 찾거나 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에게 과거 경험담과 함께 ‘왕년에’ 한가락 했다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한다. 뜻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말로써만 만족하지 않고 글로써 자기경험을 직접 집필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통한 대필로서 회고록을 남겨왔다. 回顧錄을 집필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죽기 전에 감춰진 비밀을 폭로하고자, 왜곡된 이야기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에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자기 행적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한 방법으로서 자기 과거를 회고하는 글을 쓰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를 갖고 회고록을 집필하기도 한다.

회고록은 글을 잘 모르는 文盲者가 많았던 고대에는 드물었으나 현대에 이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현상은 회고록이 집필자의 만족 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소설처럼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읽을거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반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집필자와 독자 양쪽을 만족시킴으로써 회고록은 출판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Herodotus)와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각각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인류역사의 主流는 戰爭史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다. 이 역사학 선구자들 눈에 전쟁만큼 중대한 사건은 없었다. 전쟁 결과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역사를 쓰면서 전쟁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고대사에서 전쟁사가 중시된 것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일생을 그린 회고록 가운데서도 전쟁 참여자가 남긴 전쟁회고록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 미국 역사학자 사무엘 하인스(Samuel Hynes)는 역대 전쟁 회고록 가운데 10대 최고걸작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기원전에 나온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가 있다.¹⁾ 전자는 고대 그리스인 크세노폰(Xenophon), 후자는 로마인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저술한 것으로서 둘 다 고대사 연구에서 최고의 古典으로 꼽히는 회고록들이다.

‘아나바시스(Anabasis)’는 그리스어로 ‘올라가기’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 제목은 본래 소아시아 평원에서부터 티그리스(Tigris) 강과 유프라테스(Euphrates) 강 사이의 고원지대를 향하여 군대가 행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크세노폰이 다룬 실제 주내용은 역으로 고원에서 평원으로 내려가며 퇴각하는 행군중에 부딪친 상황과 전투체험을 주로 다룬 것이다.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제목은 아니지만 그가 치른 전쟁이 자신의 군대가

1) Robert Cowley, Geoffrey Parker, ed., *The Reader's Campaign to Military Histor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96), pp. 297-299.

먼저 진격하기 시작함으로써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다.

크세노폰은 그리스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와도 친분이 있던 지식인이자 군인이었던 그는 정과 싸움에서 패하고 조국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추방후 그는 페르시아에서 傭兵 생활을 했으며 페르시아 왕위쟁탈전에서는 동생 키로스(Kyros) 2세 편에 가담하여 형 아르타크세르크세스(Artaxerxes) 2세를 왕위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진격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는 진격하는 국면보다는 진격 실패후 퇴각하는 국면에서 더 극적인 山戰水戰 체험을 하였고 더 의미 있고 심각한 것을 배웠다고 느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기억해 내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고록에서 기술하였다. 여하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반란군 용병으로서 활약한 이색적인 경험을 한 그리스 출신 지휘관 크세노폰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 사기가 떨어진 패잔병들을 이끌고 惡戰苦鬪하여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행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아나바시스』이다.

저술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원전 401~400년에 벌어진 일을 크세노폰이 그의 생애 후기에 회고하면서 대략 기원전 371년경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발생 약 30년 후, 즉 집필자가 대략 나이 30대 초반에 겪은 전쟁을 60대 초에 기억을 더듬어 회고록을 쓴 것이다.²⁾ 이것은 참전군인이 직접 쓴 것으로서 역사상 전쟁회고록이란 이름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최초의 작품으로서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잘 설명한 역사서적으로서, 지리와 행정 및 군 조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유용한 자료로서,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의한 행동들을 잘 묘사하고 후세의 職業軍人들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준 훌륭한 지침서로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

2) 크세노폰, 천병희 옮김, 『아나바시스』(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pp. 5-11.

『아나바시스』는 후세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멋있는 군인이란 전쟁에서 잘 싸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후배 군인들을 위해서 전쟁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전쟁에서 대부대를 지휘하고 큰 역할을 한 많은 장군들은 크세노폰이 한 것처럼 죽기 전에 전쟁회고록을 집필하는 것을 여생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大帝國을 지켰던 로마 시대 장군들은 코멘타리(commentarii)란 제목으로 많은 회고록들을 남겼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회고록으로는 명장 카이사르가 저술한 『갈리아 戰記』(Commentarii de Bellio Gallico)를 들 수 있다. 『갈리아 전기』와 『아나바시스』는 고대 양대 전쟁회고록으로서 각각 로마와 그리스를 대표하는 고전이다.

『갈리아 전기』는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기원전 59년 執政官으로 선출된 이후 9년간에 걸쳐 6개 로마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등을 정벌했던 사업을 기록으로 남긴 자서전이다. 전부 8권으로 구성된 이 자서전 가운데 제1권부터 제7권까지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지내면서 기원전 58년부터 52년까지 직접 집필한 것이고, 제8권은 기원전 51년에 부하 장군 아울루스 히르티우스(Aulus Hirtius)가 쓴 것이다.

카이사르가 남긴 기록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갈리아 전기』와 『내란기』 둘이다. 여기서 어쩌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征服을 다룬 『갈리아 전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그가 로마에서 최고권력을 잡은 것은 루비콘(Rubicon) 강을 건너와 내전을 치르고 정적들을 제거한 뒤였지만, 그런 모험도 그러기 전에 로마 밖의 세계로 원정 가서 특히 갈리아 지방에서 실력을 쌓고 전쟁 천재로서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갈리아 전기』는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로 쓴 읽기 쉬운 회고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옥 같은 문장들은 文學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라틴

어 사전에서 예문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고 라틴어 초보 교과서에서도 활용하고 있다.³⁾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 양대 전쟁회고록은 둘 다 指揮官 시각에서 전쟁경험담을 기술한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아나바시스』는 약 3세기 앞선 회고록의 원조라 할 수 있고 그 저자는 본래 문인이었으나 특별한 상황에서 용병 직업군인으로 신분을 바꾼 사람이었다. 반면에 『갈리아 전기』 저자는 武人으로서 유명한 장군이자 동시에 정치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쟁의 성격, 전장의 크기, 전투부대의 규모 등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방대하고 중요한 의미를 띠는 전쟁을 설명하고 지휘관의 명성면에서도 후자를 저술한 카이사르가 뛰어나게 유명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후자를 더 많이 읽게 되었다.

전쟁 체험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회고록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나바시스』가 회고록 본질로서 더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갈리아 전기』는 카이사르가 전쟁을 겪은 뒤 전장현장에서 금방 생생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회고록(memoirs)이라기보다는 일지 또는 일기(diary)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체험 경과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본인의 체험과 삶의 발자취를 제법 장편의 이야기 형태로 쓴 自敘傳이라면 통상 그것을 회고록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고 『갈리아 전기』는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두 회고록은 두 훌륭한 지휘관이 보편타당성 있는 시각에서 전쟁 승패 요인을 살펴보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기 經驗談이지만 견해 중심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고 객관성을 지키려 애쓴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글을 쓰는 형식에서도 자기가 직접한 행동을 1인칭 대신에 3인칭, 예를 들면 “크세노폰은 다음과 같이 말

3) 카이사르, 박광순 역, 『갈리아 전기』(서울: 범우사, 1990), pp. 6-13.

했다” 또는 “카이사르는 결심했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만일 이 책들을 어느 독자가 저자를 모르고 읽는다면 제3자가 쓴 전기로 착각하기 쉬운 형태의 글들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제3자가 기술한 것 같은 형식의 文章體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글이란 어디까지나 客觀的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충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던 관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歷史哲學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란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려 해도 역사가의 가치관과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엄밀히 말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⁴⁾ 하물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옮기는 회고록의 경우 더더욱 객관적 관찰이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크세노폰과 카이사르의 회고록의 경우 둘 다 집필자는 지휘관으로서 군대의 집단행동을 카리스마적 지휘관 시각에서 살피고, 사실들을 자신들의 상황판단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석하고 아무리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어도 자연히 자신의 역할과 공적을 강조 내지 과장한 부분이 있다. 한편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명으로 때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두 회고록은 무엇보다도 고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귀중한 역사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저자들은 비록 직업군인이지만 잘 훈련된 역사가들 이상으로 사건들을 예리한 洞察力과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생동감과 박진감 넘치는 글로 표현한데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후세의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4) 이 점을 가장 잘 밝힌 대표적인 역사철학 저서로는 E. H. Carr의 *What Is History?* (1961)를 들 수 있다.

하는가에 대하여 크게 일깨워 주었다. 위대한 전투지휘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현 크세노폰과 카이사르가 남긴 회고록처럼 빛나는 회고록을 집필하고자 노력했다. 위대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문필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일종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하튼 회고록 집필은 자신의 이름을 보다 더 떨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귀중한 역사자료를 물려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군인들은 많은 선배 군인들의 회고록을 접하게 되었다.

인간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회고록이 나왔다. 전쟁회고록의 종류는 원조 『아나바시스』와 『갈리아 전기』처럼 참전군인들이 직접 쓴 것이 주종을 이루지만 참전하지 않은 민간인들 가운데서도 전쟁중에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매일 작성하는 일기 또는 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긴 종류도 있다. 좋은 예로는 2차대전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신처에서 유태인 소녀가 쓴 『안네의 일기』(*Diary of Anne Frank*)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회고록을 남긴 군인들은 크게 장교와 병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교 회고록에 비하여 병사 회고록은 적은 편이다. 장교 회고록도 고급장교 특히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웠던 계급 높은 사람들이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회고록을 집필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 강렬한 의지가 더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6·25전쟁 회고록 현황

1950~53년 6·25전쟁 회고록은 주로 전쟁수행에 직접 관여한 정치지도

자들과 군지도자들에 의한 회고록들로 주류가 형성되어 있다.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회고록은 드문 편이다.

미국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Harry S. Truman)이 1956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1963년,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이 1967년, 그리고 군인 지도자로서는 미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가 1983년,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가 1969년,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1964년,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가 1967년, 클라크(Mark W. Clark)가 1954년, 戰鬪 현장에서 최고사령관이었던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가 1972년, 휴전협상 대표로 활약한 조이(Turner C. Joy)가 1955년에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이 가운데 책 한 권 모두를 6·25전쟁경험에 관한 이야기로 채운 회고록은 애치슨, 콜린스, 리지웨이, 조이 등이 남긴 회고록이다.⁵⁾

중국에서는 전쟁중 고위직책을 맡은 장군들의 회고록들이 특히 1980년대에 많이 출간되었다. 예를 들면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 聶榮臻이 1984년, 지원군 총사령 彭德懷 1981년, 지원군 부사령 洪學智 1990년, 휴전회담 중공측 대표단 비서장 紫成文이 1989년에 각각 출간한 회고록이다.⁶⁾

5)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 Y.:Doubleday, 1956);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1953-1956, Vol. I*(Garden City, N. Y.:Doubleday, 1963); Dean Acheson, *The Korean War*(New York: Norton, 1967); Omar N. Bradley & Clay Blair,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New York: Simon & Schuster, 1983);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Boston: Houghton Mifflin, 1969); Douglas A. MacArthur, *Reminiscences*(New York: McGraw-Hill, 1964);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Garden City, N. Y.: Doubleday, 1967);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Maxwell D. Taylor, *Swords and Plowshares*(New York: Norton, 1972);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New York: Macmillan, 1955).

6) 聶榮臻, 聶榮臻回憶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 彭德懷, 彭德懷自述(北京: 1981); 洪

한국에서 회고록 출간은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오늘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에서 기획하여 참전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한 것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참전자들이 직접 회고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렇게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는 한국군의 경우 아무리 계급이 높은 참전자라고 하더라도 1960~70년대에 회고록을 집필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로서 그들은 군과 사회에서 한창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회고록 집필 요구와 자극을 별로 크게 받지 않았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이 남긴 회고록 일람표를 출간된 연도순으로 저자, 책명, 출판사 등을 포함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77년: 김석원, 「노병의 한」, 육법사.
 1982년: 이용준, 「회고 90년」, 산운기념사업회.
 1985년: 차규현, 「전투: 야전지휘관」, 병학사.
 1986년: 정일권,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8년: 전인식, 「백설의 장정: 적 후방 300리의 혈투」, 건설연구소.
 1989년: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93년: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문홍구, 「나의 군 나의 삶」, 서문당.
 1994년: 박남표, 「국경의 벽 넘고 넘어」, 미리내.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백행걸, 「미완성의 성취」, 팔복원.
 유재홍,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사.

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解放軍出版社, 1990); 紫成文, 板門店談判(北京:解放軍出版社, 1989).

-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6년: 강기천,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이건영, 「패자의 승리」, 진명문화사.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7년: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상·하」, 팔복원.
이병형, 「연대장」, 병학사.
1998년: 계인주, 「맥아더 장군과 계인주 대령」, 다인미디어.
손길남,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청문각.
2001년: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원민.
이치엽, 「번개장군」, 원민.
장도영, 「방향」, 숲속의 꿈.
정래혁,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년: 이근식, 「노해병의 어제와 오늘」, 신영.
정승화, 이경식 대필, 「대한민국군인 정승화」. Human & Books.

4. 네 장군들의 회고록 :

이응준,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

여기서 필자는 모든 회고록을 조사하고 분류하기보다는 특별히 눈에 띄는 회고록 네 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회고록은 전쟁발발 당시 사단장을 역임했던 장군들 회고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회고록을 비교검토해보는 시도는 결코 네 장군의 리더십을 비교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각각 회고록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기술했는가를 조사하고 회고록의 일반적 類型, 特徵, 問題點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나아가 6·25전쟁에 대한 理解의 폭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전쟁 발발시 국군 육군은 8개 사단을 보유하고 각 사단장은 제1사단장 백선엽, 제2사단장 이형근, 제3사단장 유승렬, 제5사단장 이용준, 제6사단장 김종오, 제7사단장 유재홍, 제8사단장 이성가, 수도사단장 이종찬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초기뿐만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후에도 군과 나라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들이었다. 8사람 가운데 회고록을 남긴 장군들은 백선엽, 유재홍, 이용준, 이형근이었다. 나머지는 회고록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다만 이종찬, 김종오, 이성가의 경우 회고록은 없지만 제3자가 쓴 傳記(biography)들이 있다.⁷⁾

회고록을 남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회고록을 출간한 장군은 이용준이었다. 1982년 『회고 90년: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용준 자서전』이란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백선엽이 1920년생, 유재홍이 1921년생으로 두 장군은 생존인물이고 이형근은 1921~2002년 일생을 누렸고 이용준은 이들보다 약 1세대쯤 앞선 선배(1890~1985)였다. 6·25전쟁 발발시 이용준의 나이 만 59세였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만 28~29세에 불과하였다. 이용준이 가장 먼저 회고록을 내놓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준 회고록 이후 백선엽 1989년, 이형근 1993년, 유재홍 1994년 순으로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1) 이용준의 회고록 『回顧 90년』

이용준의 회고록 『回顧 90년』은 출생부터 사망 직전까지 90년간, 즉 일본 육사 유학시절부터, 일본군 장교, 해방후 美軍政廳 군사고문, 대한민국 독립후 초대 육군참모총장(당시 명칭은 육군 총참모장이었고 1954년 5월 30일 이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 6·25전쟁중 사단장, 전쟁후 체신부장

7) 세 사람의 전기는 각각 강성재, 『참군인 이종찬장군』(동아일보사, 1986년), 유현중, 『백마고지: 김종오장군 일대기』(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영천 대회전: 이성가 장군 참전기』(육군인쇄창, 1995) 등이 있다.

관, 반공연맹 이사장 등 다양한 경력을 역임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일대기이다. 이 회고록은 총 15개 장과 670쪽의 글로 편성되어 있고 제8장은 6·25전쟁 참전경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인생 일대기를 모두 충실히 취급하고 있지만 결코 6·25전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분량은 단지 1개 장으로서 53쪽에 불과하다. 전쟁에서 그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이나 큰 활약을 하지 않았었기에 어쩌면 그 정도 분량으로 만족했는지 모른다. 국군 창군과정에서 產婆役을 맡고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까지 역임했지만 그는 초창기 국군조직의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전쟁 발발시에 광주에서 제5사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초기전투 실패 후 육군 재편성과정에서 그는 전쟁 첫 해 가을까지 수원지구방위사령관,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서남지구사령관 등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런 직책들은 대부분 임시로 편성된 것으로서 사실상 그는 실병력을 별로 거느리지 못한 비교적 한직에서 맴돌았다고 할 수 있다.

이응준은 당시 군인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최대의 국난을 당한 처지에서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요직에 기용되지 못하고 전쟁중에 이렇다할 만한 규모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를 지휘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였다. 특히 군사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술수만 부리는 신성모와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고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은 당시 국가의 큰 비극이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閒職과 같은 中傷謀略을 버티지 못하고 전쟁발발 5개월 후인 1950년 11월 군복을 벗고 말았다. 그를 포함하여 신태영, 원용덕, 김홍일 등 예비역 원로장성들이 피난민 신세로 전락하여 부산에 남아 있을 때 이들에 대하여 1951년 봄에 신성모는 “…… 이 따위 늙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지휘했다라면 우리들은 벌써 저 부산 앞바다로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⁸⁾라고 약담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군원로들과 국방장관간에 불화가 심했다는 점을 그는 밝히고 있다. 그는 신성모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다시는 국방장관에 기용되어서는

8) 이응준, 『회고 90년』(서울: 산운기념사업회, 1982), p. 297.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2년 4월 다시 현역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는 육군대학총장과 제주도 제1훈련소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휴전을 맞게 되고 그 후 1955년 64세의 나이에 예편하였다. 당시 젊은 총참모장을 기용하는 체제 속에서 나이가 이미 60대에 들어선 그에게 사실상 가능한 보직이란 후방에서 지원 및 교육부대 지휘관을 맡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군원로로서 대우를 받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전쟁 노력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른 장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하튼 그는 전쟁중에 젊은 사단장들이 전투를 지휘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비하여 뒷전에 처져 있던 시절의 활동에 관하여 회고하면서 별로 흥미 있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이용준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중 그의 딱한 처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의 회고록의 한계이다. 예를 들면 그가 5사단 병력을 광주에서부터 이끌고 6월 27일 오전 서울에 도착해서 미아리 방어전투를 지휘한 경험이나 그 후 수원지구 방위사령관이란 직책을 맡았던 것은 초기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에서 불과 한두 쪽 설명하는데 그쳤다.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그는 패잔병과 오합지졸을 거느리고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싸웠던 경험을 별로 애써 회고하고 싶어 하거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통상 위대한 장군들로부터 이순신의 백의종군과 같은 자세를 배우고자 하고 회고록에서는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에 가까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용준 회고록은 6·25전쟁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용준보다 약 한 세대 정도 젊은 나이로 사단장을 맡았던 다른 세 장군 이형근, 유재홍, 백선엽은 달랐다. 이들은 전쟁중 승승장구하고 전투지휘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큰 활약을 하였으며 따라서 회고록에서도 전쟁과 전투경험을 보다 비중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이형근의 회고록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이형근은 회고록 구성을 이용준의 회고록과 비슷하게 일생의 삶을 두루 균형 있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총 7부로 나누어 제1부 출생에서 군인이 되기까지, 제2부 조선국방경비대 시절, 제3부 6·25전쟁, 제4부 합참 창설과 육군참모총장 시절, 제5부 군복을 벗고 해외 대사로, 제6부 공직을 통한 국가봉사, 제7부 여록으로 구성하였다. 6·25전쟁 부분에서는 특히 전쟁발발 당시 상황과 군단장 및 휴전회담 대표 시절을 중점적으로 회고하고 또한 전장지휘관으로서의 전투경험보다는 오히려 당시 한국군 首腦部가 작전지도와 인사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를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솔직히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대전지역에서 제2사단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이형근은 육군본부로부터 의정부지역을 맡고 있는 제7사단을 증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비상소집을 걸고 흩어진 병력을 모아 대대별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작전지휘 방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채병덕은 2사단병력이 서울에 어느 정도 집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부대들을 도착되는대로 뚜렷한 대안 없이 즉각적으로 전방으로만 내보내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병력운용에 대하여 이형근은 반발하고 급기야 항명까지 했다. 이 사실을 회고록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그는 군수뇌부가 적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너무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하면서 6월 25, 26일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서울방어보다는 일찍부터 漢江선에서 방어를 전개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당시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다.⁹⁾

당시 의정부지역에서의 병력운용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크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채병덕이 병력을 逐次的으로 분산투입시킨 것은 분명히 전술상

9)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pp. 50-52.

큰 과오였음에 틀림없다. 축차투입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이었지만 보다 현명한 작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며 방어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형근의 주장대로 서울을 포기하는 대담한 전략을 남침 당일에 택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 평소 육군본부는 전면전시에는 후방병력을 서울 북방으로 투입한다는 기본 방어계획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총참모장이 우선 기존의 준비된 계획에 따라 지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당장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총참모장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 북방에서 전투를 벌여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본상식이 아닐까?

이형근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무능으로 인한 국군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한걸음 더 나가 그는 당시 육군 지휘부에 “通敵분자” 즉 적과 내통한 자가 있었다는 심증을 회고록을 쓰는 순간까지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⁰⁾ 과연 그 통적분자는 누구일까? 이형근은 채병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은연중 그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채병덕을 깊이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전혀 존경하지 않은데서부터 이형근은 자주 육군본부와 좌충우돌했는데, 그런 돌출적인 행동은 모두 우국충정에서 나왔음을 회고록에서 당당히 밝히고 있다.

초기전투 후에 이형근은 전라남도 편성관구 부사령관, 육군훈련본부장, 제3군단장, 육군교육총감,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 제1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상관에게 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매끄러운 관계를 갖지 못했다. 동료 장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특유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만주군, 광복군, 중국군 출신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작전능력을 불신한 나머지 그들과 충돌이 잦은 편이었다.¹¹⁾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형근의 빼어난 군

10) 이형근, 위의 책, p. 55.

11) 이형근은 만주군 출신 작전참모부장 김백일을 용감하기만 할 뿐 작전능력은 뒤떨어진 사

인정신과 지휘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重用하였으며 전후에는 초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최고직책을 맡겼다.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로 있을 때 그는 한국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그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동부전선 일부를 주더라도 개성을 탈환해야 한다는 특별임무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休戰을 받아들여더라도 개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일단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주관심을 갖고 있던 유엔군 협상 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협상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근은 8군사령관을 집요하게 설득했으며 그 결과 유엔군 지원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해병대 1개 대대로 하여금 개성을 탈환하려는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개성 부근까지 진격하는 시도라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대의 충성심을 보였다. 이는 作戰權을 유엔군에게 이양한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작전방침에 어긋나는 군사작전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휘관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하여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제1군단장 시절에 그는 동해안 전방지역에서 작전임무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에는 없었던 수복지구에 대한 군정임무까지 맡았었다. 이 특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회고하였다. 그는 양양, 속초, 고성 등 수복지역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의 경제, 교육, 문화활동 등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량, 도로, 사찰, 고아원 등 각종 시설 복구사업에 군단공병단과 미군 장비 및 자재를 십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수복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람으로 평소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형근, 앞의 책, p. 58.

(3) 유재홍의 회고록 『격동의 세월』

유재홍은 전쟁중 사단장, 군단장, 참모차장을 역임한 전투지휘관이었다. 전투지휘관 출신답게 그는 전장에서 활약했을 때를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절로 회고하며 회고록 가운데 약 40% 이상을 6·25전쟁에 할애하였다.

머리말에서 그는 기존의 6·25전쟁 기록물 가운데 나타난 많은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부하들에게 무책임한 상관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¹²⁾ 구체적으로 어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좌익사관 서적이나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보고 주요 참전자로서 진실을 꼭 남겨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재홍과 아버지 유승열 두父子는 다같이 일본 陸士出身이었고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들은 준장, 아버지는 대령 계급을 달고 현직 사단장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아버지는 3사단장 아들은 7사단장이었다. 이와 같이 부자가 동시에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군역사에서 유일무이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 1956년에 아버지가 예편할 때까지 두 부자는 현역장군으로서 함께 군대생활을 했고 아들은 중장, 아버지는 소장까지 승진했다. 항상 아들이 직책과 계급에서 아버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던 관계로 화제를 모았던 장군들이었다.

유재홍은 북한군 남침시 주공격 대상이 된 동두천·포천지역에서 방어를 맡은 사단장으로서 초기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술회하였다. 여기서 그는 총참모장 채병덕의 功過에 대하여 이형근과는 정반대로 평가하였다. 채병덕이 남침 이후 6월 27일 저

12) 유재홍, 『격동의 세월』(서울: 을유문화사, 1994), p. 18.

년까지 의정부 전투현장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였고, 국회와 각료회의에 일곱 차례나 참석하여 전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결코 지휘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채병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참모장 자리에 있었어도 거의 똑같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쟁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데 있지 채병덕의 作戰指導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별히 잘한 것 없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다고 평가하였다.¹³⁾

그러나 우리는 유재홍 주장대로 채병덕이 동분서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작전지도는 문제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전지도란 머리로 하는 것이지 결코 발로써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서도 최고지휘관은 부대를 잘 이끌고 최선의 방법으로 작전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방 방어부대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수도 서울이 불과 사흘만에 함락당하고 만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은 분명히 의정부와 서울 방어전투에서 총참모장과 사단장들이 무능하고 작전 지휘를 잘못한데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재홍은 역설적으로 채병덕이 서울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려 노력한 결과 그나마 과도같이 쇄도해온 적공격을 어느 정도 지체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을 남침 당일에 잃는 더 큰 위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강변하고 있다.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이북에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⁴⁾ 서울 북방을 지키고 있었던 해당 사단장으로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싸운 것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혹독한 비판만 해대는 전후의 일반 평가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同情的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채병덕이 지시하고 그가 열심히 따른 전술적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었던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당시 여러

13) 위의 책, p. 129.

14) 위의 책, pp. 139-140.

가지로 매우 열악한 군사적 상황에서 적의 주공목표가 된 지역에서 그가 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불운이고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유재홍은 초기전투후 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창설된 제1군단 副軍團長을 역임한데 이어 7월 20일에는 제2군단장에 부임함으로써 전쟁 발발시 사단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軍團長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다. 그 후 낙동강 방어전에서는 영천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투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9월초 적의 집중공격으로 영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육군본부는 제8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시켜 주면서 유재홍에게 영천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재홍은 휘하사단이었던 제1사단과 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 빼내 제8사단을 증원토록 하는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했다. 대구지역도 중요하지만 당장 영천을 지켜야 한다는 정확한 판단과 함께 내린 결단이었다. 그리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에게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에게는 애걸복걸하다시피 하면서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결국 그는 전차 5대 지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즉흥적으로 직접 전차를 타고 전투를 지휘했다. 영천 시내를 질주하면서 彼我를 구분 못하는 미군 전차병들에게 “저쪽은 적, 이쪽은 아군”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사격지시를 했는데 이때 그는 그야말로 凱旋將軍이 다 된 기분이 들었다고 술회하였다. 군단장의 이런 행동은 전차 없이 싸우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장병들에게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리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대반격을 실시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¹⁵⁾

유재홍은 당시 군단을 지휘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으로서 육군본부와 군단 그리고 미 제8군사령부간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지적하였다. 당시 지휘체계는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군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고 한국 육군은

15) 위의 책, pp. 174-194.

한국 육군총참모장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던 이원화체제였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8군과 한국군 군단간 지휘선상에 단지 중계역할만 하는 육군본부가 끼어들투으로써 작전수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합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예를 들어 M1소총 한 자루를 미 제8군으로부터 받아내는 것까지 육군본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단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유재홍은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상 육군본부는 지휘 행세를 하지 않고 병력보충과 보급지원에만 충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¹⁶⁾

육군 총참모장이 미 제8군 작전명령을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씩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했다. 북진작전중에 평양은 작전명령상으로는 국군 제2군단 지역 밖이지만 정일권 총참모장은 특별히 지시하여 제7사단 일부 병력을 평양으로 전용시켰다. 국군이 먼저 平壤을 점령해야 한다는 정치적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취한 조치였다. 미 제1군단 속에 비록 국군 제1사단이 배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군단 차원에서 국군 소속 부대가 참여해서 국군의 공적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재홍은 자기 작전지역에서 미군이 공수작전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단장인 자신이 그런 계획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격중에 타부대를 만나게 되어 당황했었던 점을 회고하였다. 그는 북진중에 순천에서 공수작전을 마친 미 제187공수연대장 보웬(Frank S. Bowen) 대령과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보웬 대령의 거만한 태도에 실로 크게 기분 상할 수밖에 없었다. 보웬은 유재홍에게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소, 내가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지휘관인데 ……”라고 캐묻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유재홍은 “나는 2군단장으로서 순천 북쪽에 있는 내 병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여기를 들리게 된 것이오”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신이 담당할 작전 지역에 뛰어든 자가 그것도 직책상으로 두 단계 아래의 연대장이란 사람이 군단장에게 이렇게 오만불손할 수 있겠는가? 聯合作戰을 하면서 아무리 보

16) 위의 책, pp. 172-173.

안유지가 중요한 작전이라 하더라도 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 군단장에게 알려주지 않고 작전을 실시한 것은 당시 미군들 태도가 협력 파트너인 한국군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일권 總參謀長은 작전 3일 전에야 통보받았고 그 후 당시 통신망 미비로 제2군단장 유재홍과 휘하 사단장들에게 알려줄 새가 없었다고 한다. 여하튼 유재홍은 미군 공수작전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는데 만일 미군 군단장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공수연대장이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이는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이 얼마나 미군들로부터 무시당했던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에피소드이다.¹⁷⁾ 유재홍은 전 연합군 병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모두 이양한 채 싸우고, 그것도 미 제8군사령부 내에 국군을 대표하는 참모 한 사람도 두지 않은 채 전쟁을 수행한 것은 한미연합작전 체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¹⁸⁾

청천강전투를 회고하면서 유재홍은 전혀 걱정을 모른 채 싸웠다고 솔직히 토로하였다. 당시 군단장이었으나 미 제8군사령부나 陸軍本部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주의사항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아무 정보도 얻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북진작전에서 맹점은 미군이나 한국군은 단지 맥아더 원수의 정보판단에만 의존해서 싸웠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맥아더도 정보부채 속에 작전을 지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솔직하고 있다. 중공군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서 그가 언급한 내용은 모두 40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된 중공측 자료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듯이 회고록 군데군데에서 그는 후세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나 평가를 이용해서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회고록이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회고하면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17) 위의 책, p. 215.

18) 위의 책, p. 227.

19) 위의 책, pp. 225-227.

야 알게 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엮는다는 점은 다른 회고록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4) 백선엽의 회고록 『군과 나』

전쟁발발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은 1989년에 회고록 『군과 나』를 발간하고 다시 1999년에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을 발간하였다. 사실상 백선엽의 첫 회고록 발간은 일본어판으로서 『韓國戰爭 一千日』이 1988년에 나왔으며 1992년에는 영문판 *From Pusan to Panmunjom*이 출간되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룬 이 회고록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한국어판 『군과 나』이다.

백선엽은 3년간의 전쟁중에 사단장, 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백야전 전투사령관, 총참모장을 역임하였고 그에 따라 계급도 대령에서부터 국군 역사상 최초의 4성장군까지 올랐던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전투지휘관으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명성을 떨친 그는 회고록 거의 대부분을 6·25전쟁 이야기로 채웠다. 앞에서 다룬 회고록들이 이형근은 6·25전쟁 부분을 위하여 총 319쪽 가운데 43쪽, 유재홍은 총 528쪽 중 224쪽을 할당한데 비하여 백선엽은 총 367쪽 가운데 285쪽을 할애하였다.

전쟁중에 그는 특히 다부동전투와 평양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전쟁영웅이었고, 전반적으로 한국군 가운데서 최고의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회고록 제목 『군과 나』는 전혀 과장도 없고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제목과는 달리 회고록에서 그는 매우 겸손하였다. 결코 성공사례만 대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식으로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전쟁중에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할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꽤 포함하고 있어서 회고록의 가치는 더 빛을 내고 있다.

6월 25일 일요일 아침 보병학교 파견근무중에 있던 백선엽은 남침소식을 듣자마자 곧 육군본부를 거쳐 부대에 복귀했지만 이미 개성이 함락되고 문산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봉일천 전선을 지키기 위한 작전을 지휘했다. 봉일천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3일간을 버티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후방에서 서울이 함락되어 退路가 차단되고 결국 적 추격을 받으면서 1사단은 차량과 중장비들을 버리고 전장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한강 이남으로 탈출해야 하는 처절한 패배를 겪어야 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백선엽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사수명령만 있었을 뿐 철수명령이 없고 또한 의정부지역 전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사단장으로서 자신이 전체적인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시적절하게 후퇴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²⁰⁾

낙동강전선에서 최대 격전 가운데 하나였던 다부동전투를 회고하면서 백선엽은 韓美聯合作戰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나온 미군 연대장들 마이켈리스(John Michaelis) 대령 및 프리만(Paul Freeman) 대령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연합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양국 지휘관들 간의 신뢰가 무너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백선엽 장군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저돌적인 방법으로 돌격작전을 감행해서 전투에서 목표를 탈취하고 장병들 사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군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제1사단은 미군과 연합작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²¹⁾

6·25전쟁의 큰 특징은 한국군이 유엔군 특히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쳐 공산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인데 백선엽은 바로 이 연합작전을 가장 잘 수

20) 백선엽, 『군과 나』(서울: 대륙연구소, 1989), pp. 41-44.

21) 위의 책, pp. 69-70.

행한 한국군 장성이었다. 그는 미 제1군단장이었던 밀번(Frank Milburn) 장군을 “연합작전의 요령을 터득시켜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²²⁾

1950년 9월 제1사단은 미 제1군단 소속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이후 백선엽은 다른 어느 국군 사단장보다 미군으로부터 화력지원을 용이하게 받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그밖에 다른 국군 부대는 구경할 수 없었던 三色圖 작전지도를 미군들로부터 제공받고 작전을 한 것도 대단한 이점이였다.²³⁾

평양을 향한 북진작전에서 원래 미군작전계획에 의하면 제1사단은 미 제1군단 후미부대로서 잔적 소탕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사단장 백선엽은 군단장 밀번에게 한국군을 선봉부대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선봉부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적수도를 점령하는 상징적인 작전에서 후미에 따라 가는 것은 국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 최소한 미군과 똑같은 대열에서 진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미군과 국군이 서로 먼저 점령하려고功名심이 크게 작용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일권 총참모장도 국군으로 구성된 군단을 참여시켜 한국군의 공을 세우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군 제2군단 소속부대 가운데 1개 연대를 내보내, 즉 제7사단 제8연대를 평양작전에 투입시켰다. 이는 명백히 작전지역을 위반한 조치로서 우군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여하튼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청천강전선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면서부터 전황이 급전직하로 몰리자 다른 모든 부대와 마찬가지로 백선엽의 제1사단도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적정을 전혀 모르고 방심한 상태에서 진격중에 기습을 당

22) 위의 책, p. 174.

23) 위의 책, p. 77.

24) 위의 책, p. 106.

해 피해가 컸었다. 더구나 중공군 개입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복진을 시도하다가 유엔군은 곳곳에서 중공군 인해전술과 ‘피리와 팽파리’ 전법에 부딪쳐 전부대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임진강선까지 퇴각하게 되었다.

임진강선에서 제1사단 위기는 계속되었다. 중공군 신정공세로 제1사단 방어지대는 무참히 돌파되었다. 백선엽은 “반쯤 낮을 잃고”,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제정신을 가누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장병들이 중공군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도 말라리아 재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못하고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도주하다시피한 오합지졸 모습으로 1·4후퇴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했다. 중공군 공격이 어느 정도 멈추고 사단이 안성전선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군기쇄신이였다. 그는 부하들을 문책하면서 당시 허용된 ‘즉결처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시켜 처리하도록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전쟁 중 즉결처분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했다.²⁵⁾

부하들 과오에 대하여 백선엽은 가능한 한 重罰보다는 용서와 改愆의 기회를 주면서 부하들을 지휘했던 德將이었다. 초기전투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서울탈환 후에야 1백여 명의 장병들이 부대에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제1사단 참모들은 그들의 부역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에 대하여 그는 “우리가 엄청난 국난을 당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마당에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우리 과거를 임진강 물에 씻어 버리고 재단결하여 다시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자. 적의 수도탈환에 맹진하기 위해 지난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고 말하며 결단을 내렸다.²⁶⁾

25) 위의 책, pp. 149-152.

26) 위의 책, p. 93.

백선엽은 부하들을 언제나 부드럽게만 대한 것은 아니었다. 1951년 여름 제1군단장으로서 동해안지역 전선을 맡고 있던 시절에 그는 직속 부하 사단장이었던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면을 보인 에피소드를 남겼다. 사단장이 병력부족을 이유로 군단 작전명령을 거부하려 하자 군단장은 권총을 차고 직접 사단장을 찾아가 힐책하였다.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은 사단장은 용서를 구하고 명령에 따르겠다고 빌었다. 이 대목을 회고하면서 백선엽은 “나는 참을 때까지는 참는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당시 고급지휘관들은 거의 30세 안팎의 젊은 나이였다.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였으나 차차 계급과 보직에 차이가 났으니 통솔상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상급자가 이를 단호히 극복하지 못하면 부대의 기강은 유지될 수 없었다”고 기술하였다.²⁷⁾ 당시 젊은 나이의 지휘관들이 혈기와 패기로 부대를 이끌었던 반면에 쉽게 감정적이고 즉흥적 조치를 했던 풍토에서 백선엽의 인내와 사려깊은 지휘는 실로 비범했었다. 전쟁 전에도 육본 정보국장직 시절 백선엽이 肅軍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左翼 조직 용의자였던 박정희를 구명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⁸⁾

백선엽은 부하들에게 德將이었고 민간인들에게도 남다른 배려를 한 人道主義者였다. 당시 정부나 군대가 일반시민들과 피난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전쟁을 지도한 것에 대하여 회한을 갖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였다.²⁹⁾ 백야 전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했을 때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다. 전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입장을 백분 이해한 그는 “국군이 강하다는 것과 또한 국군이 그들을 아끼고 애호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사령관이였다.³⁰⁾

27) 위의 책, pp. 189-190.

28) 위의 책, p. 347.

29) 위의 책, p. 172.

30) 위의 책, pp. 222-223.

백선엽은 전쟁중 제1군단장, 휴전회담 개막시 한국군 대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시 백야전투사령부 사령관, 총참모장 등 요직에 기용되고 1953년 1월 31일 국군 역사상 최초로 대장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뿐만 아니라 미군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데서 큰 도움을 받았었다. 한편 그는 미군과 협력을 기초로 하여 聯合作戰을 잘 수행하면서도 미군 작전방식에 대하여 결코 모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양군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국군 지휘관들은 자존심이 상하곤 했는데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 제8군사령관들은 “잘된 것은 미군 탓, 잘못된 것은 국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³¹⁾ 중공군 4차공세에서 국군이 황성과 홍천지역에서 크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는 미 제10군단장 아먼드(Edward Almond)가 “국군을 앞세워 중공군 대공세의 예봉을 일단 저지하겠다는 복안이 아니었을까, …… 예상되는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작전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전차와 포병부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군을 굳이 선두에서 공격하도록 하여 총알받이로 이용한 미군 작전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다.³²⁾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은 『군과 나』 발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간된 책이다. 『군과 나』 개정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문 내용은 그대로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은 앞머리에 있는 추천의 글과 머리말이다. 그리고 책 제목은 제1장 “길고 긴 여름, 1950년 6월”에서 따온 것이다. 백선엽은 머리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나 전쟁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국민’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6·25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과 나』가 출간된 후 10년 동안에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北方外交를 통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도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990년대 말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남북간에 화해

31) 위의 책, p. 154.

32) 위의 책, pp. 159-160.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북한 공산군 기습남침으로 비롯된 6·25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백선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북한포용정책’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대북 군사역량을 확고히 강화’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갖추는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였고 또한 북한남침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史觀들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³³⁾

5. 결 론

회고록은 역사자료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모든 역사자료와 마찬가지로 회고록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증언을 함으로써 중요한 진실들을 분명히 밝혀서 제3자에 의한 억측이나 날조를 바로잡아 주고 때로는 양심선언과 告解聖事를 통해서 비밀 속에 숨겨진 중요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역사를 바로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고록은 집필자의 관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연히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記憶力의 한계와 均衡感覺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집필자는 스스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빼거나 영원한 비밀로 숨겨 놓으려 할지도 모른다. 회고록에는 진실뿐만 아니라 과장, 가공, 변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회고록을 읽을 때 집필자의 정직성을 검증해보려 노력해야 하고 역사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회고록, 정부문서, 신문 등과 비교분석하고 여러 가지

33)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서울: 도서출판 지구촌, 1999), pp. 18-23.

자료를 통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회고록에 기록된 자료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순수한 1차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꽤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집필자 자신이 당대에 만들어 놓은 기록물들 예를 들면 일기, 수첩, 비망록, 편지 등을 이용하여 회고록을 집필하더라도 그런 자료들 자체가 100% 정확한 사실들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집필자 자신의 많은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험적 행동은 思考判斷 뒤에 이루어지므로 그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자연히 먼저 전개된 사고판단 기준에 따라 즉 主觀的 判斷과 함께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둘째, 집필자는 순전히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연루된 사실만을 집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소문 등 간접적인 체험을 기술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회고록 내용이 모두 자신이 당시에 남긴 기록물에 근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집필하는 동안에 순전히 회상으로 더듬어 찾아내서 어떤 내용을 기술하기도 하는데 인간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급속히 감퇴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록물을 참고하고 이용한다는 점을 가정하여야 한다. 넷째, 집필자 자신이 당시에 사건 진상에 대하여 중요한 因果關係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 전문가들이 분석한 2차자료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기도 한다. 이 경우 경험담은 사건 당대가 아닌 후대의 가치기준에 의하여 채색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회고록에는 집필자가 경험한 사실만이 아니고 집필자가 나중에 공부해서 알아내고 평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지만 사건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을 사건 후에 여러 가지 리포트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많이 있다. 당시에는 자신이 몰두하고 있었던 枝葉的인 부분에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이고, 大局的인 부분에서

는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하고 그 뒤에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回顧錄은 생애 전반을 요약하는 회고록과 어느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고록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6·25전쟁 초기 사단장들이었던 네 사람의 회고록은 대체로 전자에 해당된다. 회고록 내용이 6·25전쟁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백선엽 회고록은 거의 6·25전쟁을 주 내용으로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단장, 군단장, 백야전투군사령관, 총참모장의 화려한 경력을 3년간의 전쟁기간에 모두 역임한 장군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을 했고 따라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웅준과 이형근은 전쟁중 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유재홍은 여러 전투에서 따랐던 불운으로 말미암아 6·25전쟁에서 백선엽보다 훨씬 制限的인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회고록으로는 누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다양한 경력을 두루 역임했는가와 같은 시각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전투경험 위주 즉 직책 고하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여기는 전투를 집중적으로 회상하는 회고록이 있다. 이 종류를 별로 찾을 수 없는 것은 역사연구가들에게 딱 아쉽다. 예를 들면 이형근 장군의 경우 동두천·포천전투, 유재홍 장군의 경우 영천전투 또는 현리전투, 백선엽 장군의 경우 다부동전투 또는 평양전투 등을 위주로 집중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6. 30,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전쟁회고록, 한국전쟁, 육군, 미 제8군, 사단장

<ABSTRACT>

Korean War Anabasis: A Study of Generals' Memoirs

Chung, To-woong

Because memoirs in general include many well-selected historical facts, historians often use them as valuable sources. This paper deals with memoirs written by generals who fought during the 1950~1953 Korean War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emoirs and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the war.

The paper first surveys Xenophon's *Anabasis* and Caesar's *Gallic Wars*, the two classics of war memoirs, and then makes a list of war memoirs recollecting the Korean War. It also concentrates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four specially chosen memoirs written by Korean generals—Lee Eung-joon, Lee Hyung-keun, Yu Jai-heung, and Paik Sun-yup, respectively. The four general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ir careers. They were all infantry division commanders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During the war, however, each one of them had quite a different experience.

The value of memoirs is that the major actor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event tells true war stories vividly. Historians, however, should not regard them as a collection of primary sources but must understand that they include a lot of secondary sources. Although the writer of memoirs relies on his or her diaries, letters, notes, memoranda, etc., these kinds of sources are not all related to the cold hard facts, but can be subjective to personal judgment. The writer does not always deal with his or her own experiences, but sometimes deal with indirect ones with rumors which may

prove to be false later. While sometimes telling stories by pure recollections, due to the shortness of memory the writer often relies on or refers to other sources. Also, the writer sometimes does not understand the major factor in relations to the cause and effect of an important fact until he or she studies many secondary sources provided by professional critics. In this case, the writer obviously tells stories from a viewpoint of the present.

Memoir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llustrating an entire life span of an individual and the other focusing on a particular event. The four Korean generals' war memoirs in this paper belong to the former in that the memoirs cover not just the Korean War but other events as well. However, Paik Sun-yup's memoirs include largely the Korean War. During the war Paik served as the Division Commander, Corps Commander, and Chief of Staff of the ROK Army, all within a three-year period. As a unique general who had war experiences in such a variety of positions, Paik might have wanted to tell more stories to the younger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Lee Eung-joon and Lee Hyung-keun discredited the Defense Minister and the Chief of Staff of the Army, and Yu Jae-heung thought that he was unfortunate in many battles he fought. So naturally, they told very limited stories about the war and their experiences in it.

The other kind of war memoirs, quite far from covering an entire life period, concentrates on the special battles that the writer thinks are of importanc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memoirs of this kind and historians miss them. For example, we could expect such memoirs as Lee Hyung-keun's memoirs of Dongducheon·Pocheon Battle, Yu Jae-heung's Yeongcheon and Hyeon-ri Battles, and Paik Sun-yup's Dabudong and Pyeongyang Battles.

Key Words : War Memoirs, Korean War, ROK Army, Eighth US Army, Division Commander